

'24년 한글 담은 작품 대회 추진 계획(안)

<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>

1. 목적

- 주말 한국학교, 정규 초·중등학교 및 대학 한국어 반 학생과 교육원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
- 한인동포를 포함한 미국 학생, 학부모들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한국어 반 개설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
- 한국어 교육을 통한 미국 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우호 분위기 확산 및 한국어 교육의 안정적 기반 조성

2. 추진 방안

- 한글 담은 작품대회와 한국 알리기 UCC 대회 공동 개최로 관할 구역 내 한국어 관련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
- 한국학교, 정규 초·중등학교 및 대학 한국어 채택학교, 한국어강좌 수강생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한글 사랑과 한국문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
- 한글 담은 작품대회는 2개 부문으로 시상하며, 중복 참가 불가
- 한글 담은 작품대회 이전 동일 부문 수상자는 수상에서 제외함
- 부문별 참가 상황과 동일 등급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, 등급별 작품 수 조정 할 수 있음
-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모든 경우(기존 제작된 작품 또는 타인이 제작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, AI 소프트웨어 또는 AI 에이전트 활용 제작하는 경우 등)는 모두 제외되며 추후 출품 자격도 제한됨
- 수상자는 시상식에 참여하며 우수작은 교육·홍보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
- 입상작의 저작권은 교육원에 귀속됨

3. 세부 추진계획

■ 한글 담은 작품 대회

○ 대회 일정

- 작품 접수 : 2024. 10. 2.(수) ~ 10. 31.(목) (교육원 도착분에 한함)
- 작품 심사 : 2024. 11. 5.(화) ~ 11. 7.(목)
- 결과 발표 : 2024. 11. 8.(금)
- 작품 시상 : 2024. 11. 16.(토) 14시 / 새누리한국학교

○ 대상 : 관할지역 내 한국학교, 미국 초·중학교

○ 응모 분야

■ 유초등부(유치원 ~ 3학년)

- 내용 : '아름다운 한글'을 주제로 한글과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교육·홍보용으로 활용 가능하여야 함
- 유의 사항
 - 개인 작품으로 한하며 학생들의 자율 창작을 권장함
 - 용지 규격은 letter 용지 1페이지로 제작함
 - 한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창의적인 방법과 다양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

■ 초중등부(4학년 ~ 8학년)

- 내용 : '아름다운 한글'을 주제로 한 글쓰기(편지, 묘사, 시 등)
- 유의 사항
 - 교육원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 받아 자필 한글로 작성함
 - 한글 서체의 능숙함보다 정성 어린 손 글씨, 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타인의 대필은 심사에서 제외함

○ 참여 방법

- 교내 예선 후 응모 신청서 학교별 이메일 접수 및 작품 우편 제출
 - 이메일 주소 : sfkcgedu@mofa.go.kr
 - 우편 주소 : 3500 Clay St. San Francisco, CA 94118

▪ 학교별 출품 수

학교 규모 (학생 수)	30명 이하	31명 ~100명	101명 이상	비고
출품 수	3편 이하	5편 이하	10편 이하	한 부문만 출품 가능

○ 시상 계획

구분	세종대왕상	가온상	나래상	합계
작품 수	2부문*1명	2부문*3명	2부문*5명	18
상금	\$1,000 (\$500×2)	\$1,800 (\$300×6)	\$2,000 (\$200×10)	\$4,800
시상	총영사상	교육원장상	교육원장상	

※ 미 수상 학생에게는 참가 상장 수여함, 동일부문 이전 수상자는 수상에서 제외함

○ 심사 기준

▪ 유치원~ 3학년

기준	주제 연관성	심미적 표현성	작품 완성도	구성과 창의성	합계
배점	20	20	30	30	100

▪ 4학년 ~ 8학년

기준	주제 연관성	정성어린 손 글씨	내용의 진정성	구성과 창의성	합계
배점	20	20	30	30	100

4. 기대효과

- 한국어를 배우는 유초등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로 한글 사랑과 한국어 배움 열기 지속
- 동포사회와 미국 주류사회를 아우르는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한국 문화 확산 제고
- 한국교육원 사업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향상